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에 코맥의 인종 차별 및 반유대주의 그라피티에 대한 수사 지원 지시**

"반유대주의 및 인종 차별적 상징이 우리 뉴욕 주민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어 충격적인 뿐만 아니라 매우 불쾌합니다. 이번에는 코맥의 선사인 에이커스 파크(Sunshine Acres Park)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뉴욕에는 증오를 위한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비열한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겁쟁이는 자신의 행동이 우리를 더욱 단합하게 만든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에 해당 지역 당국의 이 추악한 행위에 대한 수사에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뉴욕은 관용과 희망의 불빛입니다. 주정부는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범인들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